

전남도,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2천916억 역대 최대

풍수해 생활권·위험 개선 등 신규 27곳 포함 119지구 확정



전라남도는 2026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4개 분야 119개 지구(신규 27·계속 92) 개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천916억 원의 사업비 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풍수해 생활권 19지구 1천 92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8지

구 1천41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28지구 244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24지구 170억 원이다. 이는 1998년 사업 도입 이래 역대 최대로 올해(1천931억 원)보다 985억 원이 늘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 취약 시설과 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전남도와 시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단일 시설별 정비의 한계를 넘어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종합정비 방식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

업의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지구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시군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2026년 신규사업으로 27개 지구가 선정돼 215억 원(총 사업비 3천582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는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큰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반영 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4지구 84억 원(총 사업비 1천767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 7지구 74억 원(총 사업비 1천539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10지구 45억 원(총 사업비 156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6지구 13억 원(총 사업비 120억 원)이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재난취약지역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재해 예방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더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실시계획, 사전설계검토와 보상업무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예산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광양경제자청, 2025년 투자유치 성과 4.9조 원 달성

철강·석유화학 침체 속 산업 전환 가속, 15개 기업 투자 확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곤, 이하 광양경제자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4조9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철강·석유화학 산업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 산업 중심의 선별적 투자유치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실적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투자유치액 1조8천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개척 이래 최대 성과이기도 하다. 광양만권이 기존 중화학 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신성장 산업을 축으로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투자유치 성과를 분야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친환경 신성장 산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포스코퓨처엠을 포함한 6개 기업이 4조7,59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속가공 분야에서는 인투알씨 등 4개사가 588억 원을,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연우씨 등 2개사가 82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관광·레저 분야에서는 HJ디오션리조트씨가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킹팁스

등 일반 제조업 2개사가 512억 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광양만권에서는 총 15개 기업의 투자가 확정됐으며, 61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고용과 지역 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철강·석유화학 산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4월 30일 여수시를, 11월 20일에는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분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광양만권 산업 구조 재편에 제도적 뒷받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양경제자청은 내년에도 정부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기업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외 여건 악화라는 위기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인구감소지역 월 1만원 주택' 등 하반기 특화주택 4571호 선정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위한 특화 돌봄 시설을 마련하거나 월 임대료 1만원에 살 수 있는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유형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 전국 23곳 확정

전남 '만원주택' 등 지방 인구감소 대응 주거 모델 확대

육아·돌봄·일자리 연계 시설 갖춘 특화주택 본격 추진

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육아친화플랫폼은 최대 38억2000만원, 청년특화시설은 당 최대 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 등 총 23건, 4571호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은 우선 경기도에 선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화성 봉담3 A-2블록, 경기 남양주왕숙 A-10블

록 등 총 2건 2686호를 공급한다.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도 조성한다.

전남권에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호)이 선정됐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호), 고창(2건, 96호)이 선정됐다.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맞춤형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호), 경북 청송(110호), 경북 칠곡(34호)이 선정됐다.

/뉴스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를 입주 대상으로 특화했다. 강원권에서는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태백(40호), 삼척(220호)이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도 성남시(91호), 하남 교산(100호)에 총 191호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호), 울산 울주군(100호)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광공업 생산·건설 수주, 광주·전남 희비 엇갈렸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과 건설수주에서 광주와 전남의 희비가 엇갈렸다.

소비는 광주·전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데이터센터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7.9% 증가했다. 출하는 12.4%, 재고는 13.1%, 각각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34.3%), 전자·통신(64.6%), 전기장비(20.3%) 등이 증가한 반면, 고무·플라스틱(-34.2%), 금속가공(-33.9%), 기계장비(-14.0%) 등이 감소

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비 4.9% 감소했다. 백화점이 3.4%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17.2% 감소했다.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77.4% 증가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430.4%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21.5%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125.9%, 토목부문 190.8%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3% 감소했다. 출하는 전년동월비 보합, 재고는 1.3% 증가했다.

/신영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